불교 통일운동 새 장 연 대불련도 IMF 맞아 위축

④ 1990년대 – 시민사회운동으로의 변화와 IMF

1990년대는 사회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 이어 시민사회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시기였다.

시민사회운동은 1980년대의 급격한 민주화를 대신해 보다 세밀하고 점진적인 민주주의의 확산을 의미했다.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민사회운동의 특징은 합법적 · 비폭력적 · 대안제시가 특징이었다.

이는 폭력적 · 정치투쟁적인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과 사회발달에 따른 대안제시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대중의 인식은 불교계로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사회의 민주화운동과 맥을 같이한 민중불교운동은 1990년대 들어서며 그 영향력이 크게 축소됐다. 특히 그 내용도 1980년대에 비해 상당히 온건화 되며 뚜렷한 정치성이나 정치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닌 불교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반 대중이 불교로부터 기대한 것은 정치성이 아닌 종교성이었기 때문으로 더 이상 정치적 이슈로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정치적 운동과 함께 여러 불교계 인사들이 시도한 불교적 이론화와 그 논의들이 결실을 맺지 못한 영향도 컸다.

1990년대 운동권의 전반적인 퇴조와 함께 민중불교운동은 쇠퇴의 길을 함께 걷는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진행된 출가와 재가자간의 이완은 1990년대 들어서 보다 심화됐다. 1980년대 사회참여를 하며 승속을 넘은 동지로서 형성된 관계는 새로이 설정된 종단 개혁이라는 과제 아래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1994년 종단 개혁운동에서 재가자의 종단 참여를 둘러싸고 출 · 재가자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는다. 종단 참여가 좌절된 재가불자들은 독자적인 세력화를 모색했고 이는 1994년 재가불자연합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대불련은 이러한 틀에 동참했다.

이 당시 재가불자들은 "개혁회의가 역사의 흐름을 놓쳤으며 개혁이 계파와 문중의 이해관계로 점철됐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대불련 또한 내부적으로 종단과의 관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창립 이후 제도적으로는 묶여있지 않았지만 창립과정과 이후 지도과정에서 조계종 스님들과의 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불련은 재가불교운동의 독자성과 종단과의 제도적 관계 형성을 고민했다.

1994년 개혁운동 이후 새로운 대승불교운동과 재가불자의 지도력 확보란 현안에 대불련과 재가불자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전개한다. 바로 수행이다.

이 당시까지 불교 내부에서 수행에 대한 대중들의 잠재 욕구는 있었지만 수행이 독립적인 중심사업으로 전개된 적은 없었다. 1970~80년대 각 지역에서 소그룹 단위의 교리교육과 법회, 수련대회가 중앙과 지부 단위의 제도적인 틀 안에 정착됐다. 1992년 대불련은 수행학교와 교화단 활동으로 기존 수련대회에서의 수행을 더욱 제도화 한다. 현재까지 매년 초 열리는 수행학교는 대불련 지도자 육성 및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 KBUF불교아카데미가 교화단 활동으로부터 발전해 진행되고 있다.

서울과 부산 · 대구 · 대전 지역에서는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 모색되거나 진행됐으며 지역적으로는 정토회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 생태운동이 전개된 곳도 있었다.

민중불교운동 1990년대 들어 약화
정치색 덜고 불교개혁·촛점 맞춰
종단 개혁 때 앞장서 제 목소리
재가운동 동참·수행교화 제도화

또 새롭게 대두된 통일 문제에 있어 사회흐름과 발맞춰 대불련 차원에서의 통일운동 또한 전개된다. 1996~1997년에는 '북녘동포돕기운동'이 주요사업으로 전개되며 불교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대불련은 통일순례단 형성 등을 통해 교양교육과 함께 모금 사업도 진행했다.

하지만 1990년대 대불련은 IMF를 전후로 대학생들의 사고가 변화하며 큰 위기를 맞는다. 취업과 경제 중심의 대학문화 변화에서 동아리 활동, 특히 학내 종교활동은 쇠퇴해 갔다.

지역 간 네트워크 붕괴로 인해 대불련 중앙집행부의 각 지역 파악조차 힘든 실정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학내활동을 지도하는 지도교수와 법회 지도법사의 부재, 멀어져간 동문들의 관심 역시 대불련 활동의 둔화의 요인으로 자리했다.

대불련 활동의 침체는 한국불교의 미래축인 젊은 불자들의 역량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도교수와 지도법사, 동문의 새 관계 형성과 지역과 중앙과의 네트워크 복원, 새 시대에 맞는 포교전략 수립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덕현 기자

1999년 최초 방북단으로 남북불교교류에 동참한 대불련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시위하는 대불련 청년불자들

1994년 부산지역에서 열린 수련대회에서 거리 포교를 하는 대불련 회원들

불자간 유대관계부터 늘려야

28년간 공주 교대 지도법사 해월 스님

"대학생 불교학생회는 아직까지 충분한 역량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계의 관심으로 젊은이들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효사 주지 해월 스님은 20년 넘게 대불련 지도법사로 활동해 온 대불련 근대사의 산 증인이다.

스님은 1976년 원광대 한의과대학에 입학하며 불교학생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출가까지한 스님은 지도법사로 대불련 활동을 계속했다.

해월 스님은 1984년부터 원효사 주지로 있으며 공주교대 지도법사를 맡고 있다. 학생 · 지도법사 경력을 모두 합하면 스님은 40년 넘게 대불련 활동 중이다.

스님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이 사라지는 것에서 대불련의 위기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1970년대만 해도 지회별로 수십에서 100여 명 단위의 회원이 있었다. 대불련은 한국불교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한다. 날이 갈수록 위축돼 현장에 있는 법사로서 대불련과 불교계 미래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스님은 "대불련의 문제는 활동의 구심점이 없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과 별개로 스님과의 유대관계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학창시절 금산사 도법 · 원행 스님이 지도해 주셨다. 내가 대불련 지도법사를 맡게 된 것도 학생시절 큰 스님들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스님들을 비롯한 불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스님은 공주지역 지회 2곳 중 하나인 공주대 상황을 통해 지회 현장의 모습을 전했다.

스님은 "공주대는 한마음선원 음성지원에서 법회를 해주고 있지만 대학원생까지 해서 3~4명 뿐이다. 그나마 회장이 열심히 활동해서 3~4명으로 명맥을 잇고 있지만 회장이 졸업하고 나면 유지조차 힘들 지경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공주교대도 한때 3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있었다. 근래 10여명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그나마 교대여서 인성 교육과 관련한 종교활동의 관심으로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번 만난 인연 커서도 기억
스님들 관심 절실해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한계
원력 갖고 뛰어야 사람 모여

스님은 끝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한 불교 인적 저변이 있다. 열심히 뛰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불교학생회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도 다른 곳으로 찾아간다"며 불교학생회 자원을 법회로 끌어 들이는 지도법사, 지도교수, 대불련 회원들의 역량 발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정합니다 제871호 대불련 총동문회 명호근 총재 인터뷰 기사 중 대불련을 대불련 총동문회로 정정합니다.

천태차문화대학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천태차문화대학 제1기

천태차문화대학

수강기간	2년
수강대상	차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
수강인원	00명
특 전	1. 수업료 전액 무료 2. (사)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 다도대학 수료증 3. 천태종단내 차문화연구원으로 각종 행사에 활동
교 과 목	한국차문화사, 중국차문화사, 일본차문화사, 동다송, 다신전, 불교학개론, 초발심자경문, 예절, 제다, 천태다법

천태차문화대학원

수강기간	2년
수강인원	00명
교 과 목	다경, 일본다도실습, 중국다예실습, 도자기 감상 및 실습, 제다, 천태다법, 다화, 품평, 다시 감상, 특강

천태차문화대학원 심화과정

수강기간	1년
수강인원	00명
교 과 목	차와 명상, 다부, 교육학 개론 및 실기 방법론, 향도, 제다, 홍차 및 테이블 세팅, 다식 및 천연염색, 특강

교육목적

한국불교차문화의 대중화에 노력해온 (사)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가 한국불교천태차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불교차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 다도교육을 실시한다.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는 천태차문화대학에서 진행하는 다도교육을 통해 심신을 청정하게 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목표

차(다도)에 대한 예술 · 인문 · 과학 · 사회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배운다. 한국불교의 전통다예, 헌다의식, 끽다 예법을 익히게 하여 우리나라의 불교차문화 대중화에 기여한다.
천태다법을 연구 계승 발전시킬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다도를 통하여 심신수련과 자아실현을 추구한다.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교부기간 : 2012년 3월 1일 18:00
- 원서 교부처 : 1.천태종 홈페이지→참여마당→자료실
  2.총무원 교육부(구인사)
- 접수 : 2012년 2월 1일~3월 2일 18:00
- 접수방법 : 우편 · 방문 · 이메일 접수(7315kyo@hanmail.net)
- 접수처 :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천태종 총무원 교육부
- 원서 접수비 : 5,000원

■ 면접 일시 · 장소
- 면접 : 2012년 3월 3일(토) 19:00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강의실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 개강일(입학식) : 3월 7일 17:30
- 문의전화 : 043)420-7315(구인사 교육부)

■ 차문화대학 위치 및 오시는 길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SKHUB
- 서울역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시내버스 151번, 704번, 8000번
- 고속버스터미널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시내버스 401번

※ 상기 사항은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